

## 윤구병 <함과 됨>

제10강 - '있음과 없음', '함과 됨'  
(1교시)

### ◆ '함과 됨', '있음과 없음'의 연관성

오늘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먼저 유클리드기하학하고, 리만기하학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공간의 성격에 연관되는 것인데, 닫힌 공간이나 열린 공간이나 하는 문제고, 열린 공간에 대해서 맨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원자론자들이라고 말했었죠. 로이키푸스(Leucippus)에서부터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를 잇는 원자론자들이 열린 공간을 생각했고, 이 사람들은 이 우주는 공간과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그 안에 빈 틈, 공간이 하나도 있지 않으므로, 아토마(atoma), 텀네인(temnein)이라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그것은 가른다, 쪼갬다라는 말입니다. 아토마의 '아'는 부정사로서 쪼갤 수 없는 것,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있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있는 것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있음과 있는 것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지닌 성격을 원자론자들은 원자라고 불렀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요. 구처럼 생겼고, 모든 것이 달라붙어서 하나로 되어 있고, 분할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하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을 무한히 작은 것들로 쪼개서 무한한 공간 속에서 흩트려놓은 사람이 원자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원자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우주 속에서 원자의 수도 무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무한하고, 공간도 무한하다. 근데 공간과 원자의 성격은 각각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함과 됨이 어떻게 다르냐고 이야기 했을 때 한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함은 능동성이 강조되는 말이고, 됨은 수동성이 강조되는 말이다. 그런데 됨은 수용성, 받아들임,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을 하지 않고 그 작용을 받아들이는 측면입니다. 함이 작용을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세상이라 그럴 때, 불란서말로 오브젝트, 영어로 오브젝트, 독일로 게겐스탄드라고 그러는데,

\* Objet, Object, Gegenstand, Ob+icere

Objet, Object라는 말은 Ob에 icere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가로막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Gegenstand라고 하면 독일에서 Objet, Object라고, 토박이말로 직역을 한 건데, 이것이 Objet, Object를 그대로 나타낸 말입니다. 맞서 있다. 맞서 있는 것은 어떤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내 시선을 가로막아서 이 학생이 저하고 맞서 있고, 버티고 서 있는, 내 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전 이 학생 뒤에 있는 다른 학생을 보고 싶은데 말이죠. 이렇게 방해물이 되는 것, 제 시선에 대해서 반작용을 하는 것이죠.

반작용의 능력을 무화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책상 표면만 보면 원목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진짜 원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두들겨서 소리를 듣는 방법도 있고, 옆이랑 앞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것이 원목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학생曰: 잘라봐요.) 네, 잘라봐야죠. 그런데 자르려는데 이 책상이 반항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학생曰: 자를 수 없죠.) 자를 수가 없죠. 그렇죠? 원목으로 색은 띠고 있는데 금강석이다. 그래서 이걸 자를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나무인지 금강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항하는 임계점이 있죠. 모든 물질들은 저항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계속해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원자 이하인 아원자 수준으로 계속해서 쪼개서 소립자, 그것도 쪼개서 그 결을 보고 이것이 어떤 물질인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알아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쪼개면 당장에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이 사물의 결을 보고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갈, 걸, 끝, 어원으로 보면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 사물과 사물이 아닌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사물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을 보고, 옆을 들여다보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되도록 많은 결을 살핀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잘 알 수가 없어, 가르고 쪼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안에 숨어 있는 새로운 결을 들어낸다는 것이죠? 자꾸 쪼개서 표면적을 늘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차원 세계를 이차원으로 전부 환원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이 자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내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사물이라는 것을 깊이 없는, 삼차원 공간을 이차원 공간으로 환원시키게 되면, 이 모든 물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물리현상이 이해된다면 화학, 생물학, 사회, 역사, 인간현상까지도 전부 단순한, 이런저런 것들이 복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출발지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주론을 만들어 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론자들, 또 하나는 플라톤입니다. 원자론자들이 열린 우주, 개방된 공간을 상징했다면, 플라톤은 닫힌 우주, 폐쇄된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현대물리학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두 가지 가정입니다. 이 우주를 열렸다고 보느냐 닫혔다고 보느냐. 유클리드는 원자론자적인 전통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린 공간, 등질적인공간을 상징하고 기하학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렇지만 로바첵스키(Lobachevskii)나, 리만의 경우 흰 공간, 그것이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닫힌 공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닫힌 것, 열린 것으로 구별하기는 힘들어도 공간 자체가 휘어 있는 것으로 보이냐, 그런데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간은 없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공간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은 세상이 됩니다. 맞서고, 저항을 합니다. 없는 것만이 어떤 작용에도 반작용하지 않고 순수 수동성을 띠게 됩니다. 공간이 원자한테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간의 특성이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간이란 것이

없는 것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면 있는 것은 뭐냐? 원자만 있다. 데모크리토스에 의하면.

있는 것을 상징하고, 없는 것을 상징하게 될 때, 거기서 운동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함이 됐든 됴이 됐든 하나는 능동적인 운동의 양태이고, 하나는 수동적인 운동의 양태인데 있는 것과 없는 것 안에 운동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있음 (있는 것)

\*없음 (없는 것)

운동은 변하죠. 변하는데, 두 가지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없는 것에서 무언가 자꾸 생겨나서 있게 되는 것, 또 하나는 있는 것이 자꾸 사라져서 없게 되는 것, 보통 상식적으로 이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운동이 없음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강운동을 그 이하로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말하자면 정지지점을 나타내는 거죠. 거긴 운동이고 뭐고 다 없다. 우리가 운동과 정지로 이야기하자면 없는 것에 이르러서 하강운동은 멈춘다. 상승운동은? 있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죠. 있는 것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서 없는 것으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있음과 없음, 혹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두 한계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당구공을 예로 들어 이야기했던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음이 여럿으로 있다면, 여럿의 최소 단위가 뭐라 그랬죠? 둘, 둘이 여럿의 최소 단위죠. 만일에 있는 것이 둘로 있다고 치자. 그럼 이것을 있는 것 기억( $\neg$ ), 있는 것 니은( $\neg$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것 기억( $\neg$ )과 있는 것 니은( $\neg$ )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누는 경계선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이 경계선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있는 것이라 하면 있는 것 기억( $\neg$ )과 니은( $\neg$ )은 달라붙는다, 없는 것이라 그러면 그 자체 규정상 없음으로 달라붙는다. 그래서 있는 것은 하나라고 이야기 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 없다고 있는 것이 부정돼버리면, 부분 부분 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랬죠. 통째로 부정이 돼서 있는 것은 하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얻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동 웃음.)

그러면 있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多)와 운동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설명하려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있는 것 하나만 놓고 가버리면 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원자와 공간으로 이야기를 하든 질료와 형상으로 이야기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두 개를 놓고 나가야 하는데, 최초의 두 개는 뭐냐? 있음과 없음. 이게 최초의 두 개인데 있음과 없음이 서로 관계 맺을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음과 없음이 서로 관계 맺을 필연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있음과 없음이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다. 있음과 없음이 접촉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왜 이 우주에 원자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비돼서 또 공간이 있어야 되는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냥 우연히.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에 이르는 기간 동안 왜 있음과 없음이 이렇게, 원자와 공

간이 우주를 이루도록 있게 되느냐, 동시에 공존하게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은 우연이다, 필연이다, 어쩔 수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촉하고 있는 최초의 둘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경계선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있음에 속하느냐, 없음에 속하느냐, 있음에 속하면 있음 있음 있음으로 다 없어져버려서 있음만 남게 되고, 경계선이 없음에 속한다면 없음 없음 없음해서 있음이 다 없어져버려서, 전에 이야기했듯이 있음에도 속하지 않고 없음에도 속하지 않는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아페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규정성, 무한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한한 것이다. 있음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있음에도 구별되고 없음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없음에도 구별되는 것이다, 제3자다.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 가운데서 수를 세는데 하나, 둘, 셋, 많다. 그렇게 세는 부족들이 있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세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고 이 세 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多)와 운동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무규정성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상상의 산물이고 허상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 없음) 이 다(多)와 운동, 우주의 삼라만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규정성, 무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한의 관념이 없다면 우리는 삼라만상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구공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당구장에 가면 접촉한다, 그러는 것을 딱이 됐다고 그러기도 하고, 스윙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구대가 완전한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딱이 됐다가 살짝 구르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접촉이란 게 묘한 겁니다. 접촉의 성격이라는 게 대단히 특이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닌,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둘로 있다고도 볼 수 없어요. 둘로 완전히 분리돼버리면 접촉이라고 안 하죠. 그리고 하나로 완전히 붙어 있으면 둘이라고 안 하죠? 빨간 공과 흰 공이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접촉의 성격이 뭐냐면 바로 무규정성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빨간 공에도 속하지 않고 하얀 공에도 속하지 않는데, 하얀 공과 빨간 공을 서로 관계 맺게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걸 우연이다. 그런데 흰 공과 빨간 공이 접촉하고 있을 필연적인 필요가 없죠. 이것이 완전한 구(球)라고 생각할 때 접촉점은 어디죠? 하나죠? 근데 그게 운동을 합니다. 빨간 공에 속했다가 하얀 공에 속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맺어줍니다. 딱 분리되면 관계 맺지를 않죠. 근데 이 점이 하얀 공에 속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빨간 공에 속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여기서 최초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빨간 공을 있음이라 하고, 하얀 공을 없음이라 하게 되면, 운동은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있음도 운동하지 않고 없음도 운동하지

않는다, 있음과 없음의 관계망 속에서 운동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을 갈라볼 때 능동적인 측면의 운동이 있고, 수동적인 측면의 운동이 있는데, 수동적인 측면이 됨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순수 수동성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자경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자경을 백퍼센트 수용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강운동은 대상없는 운동입니다. 없음으로 가는 특성이 뭐냐면 등질적인 측면이 자꾸 드러나고, 모든 차이들을 뭉개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갑니다. 이 컵과 매직펜하고는 왜 다르다고 그랬죠? 컵은 매직펜이 아니고 매직펜은 컵이 아니니까 인데, 왜 아니냐고 하면 컵에 없는 어떤 것이 매직펜에는 있고, 매직펜에 없는 어떤 것이 컵에는 있다. 그것이 색깔이 됐든, 크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매직펜은 컵이 아니고 컵은 매직펜과 다르다. 그런데, 능동성을 지닌 것이 무엇이나 할 때, 고대 원자론자들이 능동성을 지닌 걸 무엇을 놓고 봤다고요? 원자와 공간밖에 없는데 원자에다가 능동성을 부여했습니까, 공간에다 능동성을 부여했습니까? 원자에다 능동성을 부여했죠? 왜 그랬냐면 작용을 할 수 있는 건 있는 것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은 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 작용을 하는데, 있는 것은 원자뿐이니까 원자의 능동성이 있고, 공간에는 수동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원자의 이합집산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원자론자들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자도, 우주공간도 무한하니까 원자는 수에서 무한하고 우주공간은 외연에서 무한하니까 우주는 무한우주가 됩니다. 근데 플라톤의 경우 폐쇄된 우주를 상징하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로바체프스키가 됐든, 리만이 됐든, 아이슈타인이 됐든, 전부 하나로 되어 있는 폐쇄된 우주를 상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깨져나간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등질적인 시간과 공간에 의존해서 구성했었던 것들, 그리고 수학적으로 생각했었던 모든 우주체계 전체가 깨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 모양에 대해서는 망원경같이 생겼다든지 도넛같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상정하지만 전체의 특성 하나는 폐쇄된 우주를 놓고 나간다는 것. 어느 관점에서 우주를 보느냐, 어떤 가설을 깔고 우주를 보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되는 가설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폐쇄된 것이냐, 개방된 것이냐, 열린 것이냐, 닫힌 것이냐, 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들, 갈릴레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현대 양자역학에게 기대고 있는 물리학자들도 많습니다. 폐쇄된 우주를 전제로 하고 삼라만상을 설명해야 한다.

## 윤구병 <함과 됨>

제10강 - '있음과 없음', '함과 됨'  
(2교시)

### ◆ '있음과 없음'의 시간과 공간

<박홍규 전집> 다섯 권으로 완간이 된 건데 마지막 권이 창조적 진화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강의하시고 제자들이 묻고, 그럼 선생님께서 대답하시고 하는, 플라톤이 <대화록>을 쓴 이후로 동양에서 가상의 대화가 아닌 현실에서 스승과 제자들이 묻고 답하는 대화를 쓴 것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보니까 어느 분은 일, 이권이 절판이 돼서 복사해서 봤다고도 하는데 다시 다섯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팔십년 대에 강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저에게도 새삼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이야기했을 듯싶는데, 박홍규 선생님은 제 은사이시고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박홍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용렬하기로 하면 아직도 박홍규 선생님의 사고수준의 1/10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분이었고, 금세기에 아마 전 세계에서 한, 둘이 있을까 말까한 깊이 있는 사유를 한 선생님이시고, 다른 학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분은 잡일을 일체 하지 않았습시다. 학과장도 맡지 않았습시다. 그렇게 오로지 철십대 중반에 돌아가실 때까지 학문으로만 일관을 했고, 외부강의도 한 적이 없고 강연 같은 것은, 저처럼 날라리하고는 다르셔서 해본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유체계에서 물샐 틈 없이 짜임새 있고, 철학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 유하신 분인데, 여러분들께서 형이상학의 이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려면 박홍규 선생님 책을 보시는 것이 좋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마르크스 이래로 서구 스콜라철학을 형이상학으로 봐가지고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형이상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존재론과 우주 삼라만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일관해서 꿰뚫어보려고 하는 노력에서부터 원인학, 왜 왜 하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이 학문의 전통을 올곧게 이어받고 그것을 나름으로 확대하고 승화시키신 분이 바로 박홍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정신적으로는 스승이자 은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하에 계시다가 제가 이런 짓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시간에 공부하지~' 그러실 겁니다.

제가 전에 테트락티스라고 해서 10을 완전수라고 봤었던 피타고라스학파의 전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피타고라스 전통에 따르면 한 개가 하나인 것을 점이라고 보고 한 개가 둘이 있는 것을 선이라고 봤죠. 그리고 한 개가 세 개가 있는 것을 면이라고 그러고 가장 작은 수의 한 개 선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면이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네 개가 있는 것은 입체, 정사면체, 이렇게  $1+2+3+4=10$ 인데, 우주 삼라만상은 한 개가 하나가 있거나,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넷이 있거나, 이것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피타고라스학파들이 했죠.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있는 것은 한 개가 몇 개입니까?

(대답 없음) 하나입니다. 끝이 하나인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학생曰: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 것은 면 아니면 안 보입니다. 선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가장 큰 하나도 안 보이고 가장 작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있음은 안 보인다. 왜냐? 한 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없음은 어떻습니까? 한 개가 없으니까 안 보입니다. 한 개가 하나인 것도 안 보이고, 한 개가 없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논리학 같은 책에서 개념으로만 있지, 가시적이지 않고 정의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점에서 똑같은 것이다,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특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인데 그것은 개별화된 존재, 개별화된 무, 이런 것들, 여럿으로 흩어져 있던 존재와 여럿으로 흩어져 있던 무를 있는 것/ 없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있는 것도 있음의 성격에 참여하는 한은 그것이 하나로 있게 되고, 따라서 그것은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없음은 없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 끝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귀로 듣고 오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 세계는 가시적인, 볼 수 있는 세계인데, 시각정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삶의 정보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입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曰: 오석수준에서는 입체를 인지하고요, 감각수준에서는 입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입니다. 우리 시각은 감각 기관이니까, 통각의 능력은 따로 빼고 우리 시각은 평면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겹만. 한계, 갈, 끝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서 최소 한계는 셋이다. 끝이 세 개인 경우, 삼각형으로 이 우주를 모두 구성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인식의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가설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 모든 걸 알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측정가능성, 피타고라스학파한테 큰 재난이 무엇이었습니다? 루트2의 발견이었죠? 가장 큰 재난이어서 피타고라스학파에서 이것은 무규정성이 드러나는 측면인데, 무규정성은 피타고라스학파에서 극구 추방해야 할 것이고, 우주 삼라만상이 수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부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기본을 이루고 있는 세계관을 이루는 사태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밀로 감추려고 했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제가 엇그제 봤던 달입니다. 요즘 달이 큰데, 이것을 가시적인 원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적인 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원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원 비슷한 특수한 형태는 시각화해서 볼 수 있지만 원 그 자체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원을 어떻게 해서 안다고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무한히 서로 접촉하고 있는 점들을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수학자들이 원주를 계산을 하는데 몇 조 단위까지 계산을 해냈다, 나는 암산으로 해냈다, 나는 슈퍼컴퓨터로 해냈다, 하는 이런 것을 책으로 하면 숫자만 계속해서 기록 책이 수천, 수만 권이 될 것입니다. 왜 이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

로 유명한 수학자라고 뽑내고 그러죠? 제가 듣기로는 미분/적분을 대수학 영역이라 그러니까? 해석학! 뉴턴이 무한의 영역을 수학적으로 극복하겠다고 했던 것이 대수학 영역의 해소라 그래서 미분/적분을 개발했죠. 그런데 미분/적분은 어떻습니까? 전부 한정된 수치의 영역으로 무한의 영역을 수렴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정작 수렴이 되나요? 수렴이 안 된다는 게 파이, 계산에서 나타나죠?

실제로 유한의 영역과 무한의 영역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무한의 영역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수리체계에서부터 재는 것과 연관하는, 말하자면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매트릭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시죠? 쟤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매터도 마찬가지죠? 좌, 우, 아래, 위로 행렬 재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디지털 세대죠. 그런데 운동은 디지털 세대가 아니고,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무규정성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운동이 해석이 됩니다. 아까 제가 두 당구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두 당구알이 접촉을 할 때, 그 사이에 접촉면을 매개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은 빨간 당구알에도 속해 있지 않고, 하얀 당구알에도 속해 있지 않고, 늘 왔다갔다 요동치고, 진동한다. 이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베르그송에서도 중요한 개념이고 들뢰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플라톤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플라톤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가 셋입니다. Demiourgos라고 우주를 조정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폐쇄된 공간으로 만들 때 idea, 독일어로는 ide라고 하는데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gigromenon,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휠레라고 그러니다만, 이것이 된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데미우르고스는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은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순수 형상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재정리가 되니다만, 휠레의 원학은 목재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하는 목재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질료라고 철학책에 번역이 됐습니다. 끔직한 번역이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삼라만상은 질료와 형상의 결합이고, 형상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플라톤에 따르면 형상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형상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허물로 둘러싸인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부 형상을 본뜬, 가상들만 볼 수 있지 형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각형 그 자체는 볼 수가 없고, 특수적으로 그려진 몇 센티, 혹은 어떤 둔각이라든지 예각이라든지 등변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삼각형의 특수형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형상 그 자체는 볼 수 없고, 형상에 투영된 것들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미우르고스가 이 우주를 만들 때 삼각형으로 만듭니다.

근대물리학자나 현대 물리학자들이 계속해서 끝을 늘리고, 우주 자체를 쪼개고 쪼개고서 입체를 평면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분해하는 쪽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 바로 플라토니스입니다. 평면으로 우주를 구성했으니까, 해체하면 다시 평면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점점 원에 가깝게... 뉴턴에 의하면 미적분을 통해 조그만 삼각형들을 계속해서 무한히 더해감으로써 원주율에 계산해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 바로 플라톤주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환원론이 나오는데 데미우르고스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나면, 삼각형을 수학적으로, 산술중앙하고, 조화중앙이라는 것을, 어떤 띠는 산술중앙을 중심으로 만들고, 어떤 띠는 조화중앙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밖에는 정지의 띠를 두르고, 안에는 운동하는 띠를 둘러가지고 이 우주를 구성해 낸다. 우주의 밖은 정지의 띠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안에는 끊임없이 운동이 이루어지는 천체. 거기에는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고, 그 중심에는 지구가 있다고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구는 불변하는 띠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 중심에 있다는 것은 불변하는 형상이 있고 불변하는 띠의 가장 먼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이해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중심에 지구가 있는데 데미우르고스의 힘이 가장 적게 미치는 곳이다. 가장 멀리, 그리고 형상의 세계에서부터도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불안정한 곳이다. 가장 다양한 변화가 있고, 가장 불안정한 곳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나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인간을 비유로 들 때 인간의 신체부위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 뭘까요? 옛날부터 인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원이 완전한 세계의 시각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구가 가장 완전한 것이고, 사람에게 구와 가장 닮은 곳이 있다면 머리다. 그런데 머리만 있으면 그나마 완전한 세계를 더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고, 훨씬 더 좋겠죠. 요즘에도 신체 다른 부위는 다 절단해 버리고 머리만 있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영화 비슷한 것도 나오고 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머리가 굴러다니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가장 완벽한 운동을 할 수 있을 건데 왜 머리만 있지 않고 손과 발, 몸 같은 것이 생겨나는가? 이런 것을 설명할 때 플라톤은 '이 지구가 불안전하게 생겨먹은 것이어서 완전한 구도 아니고 더러운 구덩이도 있기 때문에, 굴러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다시 나올 길이 없다.' 그래서 손발을 달아서 기어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이 완전한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체노동, 몸을 움직여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이 우화 비슷한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학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요소가 다 있는데 gigromenon, 이것은 플라멘의 아이티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 말로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어느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방향하는 원인이라는 뜻에서 무규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료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는 한계가 없으니까 한계는 늘 이디아에서 전해주는 것인데 그 자체에서는

한계가 없고 무한한 것이고, 무에 가까운, 허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 원인 하나만을 놓고 gigromenon을 Demiourgos가 거기에 숫자들을 부여해서 질서를 줍니다. 근데 질서를 주는데 머릿속에 스스로 질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디아들이 있어서 그 이디아들이 방황하는 원인들에게 방황하지 않도록 이끌어가서 삼라만상을 구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폐쇄된 세계. 우주는 하나고 불변하는 것인데, 내부에서만 변화들이 있게 되는 세계로 상징을 하고 맨 위에는 전체로서 하나로 가장 큰 있음이 있고, 있음의 중심에는 없음에 가장 가까운 혼란스러운 변화무쌍한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톤의 세계관이 대개 비관적인 세계관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근대물리학을 거쳐 현대물리학으로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위장을 거칩니다. 통일된 우주가 빅뱅에 의해 터지면 무한 공간으로 흩어져나갈 건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블랙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체의 순환이 반복되듯이 평 터지고 그것을 다시 수렴하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체계의 근원은 어디서 생기냐면 인간의 시간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를 인간 두뇌 속에서 단순한 운동, 등질적인 공간운동과 시간운동으로 환원시키면서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닳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닳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주를 이렇게 해설을 하고 그 가설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나옵니다. 유클리드기하학을 대전제로 깔고 나가느냐 아니면 리만기하학을 대전제로 깔고 나가느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인간의 두뇌가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등질적인 공간, 등질적인 시간이 실재하는 공간이고 실재하는 시간이나? 풀잎한테 물어보고 지렁이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니네 그렇게 어리석니?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등질적인 시공간으로 환원해서 해석하는데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고 너희들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니네들은 지렁이고 니네들은 풀잎이지?’ 이렇게 질문을 해봄 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